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가, 주님의 심장으로!”

파라과이 양항근 선교사

-2018년 5월-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뜻을 이룬다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새 날과 새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파라과이 선교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세인트 폴(St. Paul) 학교 소식

#고난주간 #개교 30주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고난주간 (3월 26~27일)

1992년 헌법개정 전 까지 가톨릭이 국교였던 파라과이에서는 고난 주간의 목, 금요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찌빠(chipa)’라는 전통 빵을 구워먹으며 한국의 명절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날로 강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을 ‘연휴’로 여기는 관행을 깨뜨리고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부활절 성극’을 지난해부터 교과과정에서 편입시켰습니다.

전교생이 함께 성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성경말씀을 자연스럽게 암송하는 은혜가 있었고, 작년보다 한층 발전된 모습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개교 30주년 - 고통 속에서 빛어진 진주처럼 (5월 4일)

* 30주년의 상징은 '진주'입니다.



“Every Student to a leader”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를 리더로’ 라는 비전으로 세워진 세인트 폴 학교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졸업생들의 활동 영역이 점점 다양해져가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이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특히, 예전 학생들이 학부모가 되어 그들의 자녀를 모교에 보내고 있고, 교사로서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등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를 위해, 20여년전 IMF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주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중보해주신 분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 올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세대를 지나 새로운 30년을 바라보며, 람바레 도시를 넘어 파라과이와 중남미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컴퓨터학과 개설’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지금 파라과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인트 폴 학교에서는 이미 8년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오고 있는데, 애마다 학생들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에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이러한 문화와 기술의 발전을 세인트 폴 학교가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컴퓨터학과 신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라과이 교육 관계자들과 협력의 길이 열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컴퓨터를 비롯하여 필요한 기자재들이 마련되고, 재능과 열정으로 준비된 선교사들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라” (시 85:12)

